

## 송암교회 말씀묵상

- 이 달의 사진 -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사진>

### ▶ 향후 여름행사

-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7월 23일~24일
-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7월 30일~31일
-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8월 14일
- 제 2청년회 여름수련회 8월 20일~21일

### ▶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는 모임

- 아브라함회 7월 23일
- 보아스회, 여호수아회 7월 30일
- 제 1청년회 7월 31일
- 베드로회, 요한회 8월 13일

2022년 7월 25일(월)

향기로운 데이트

찬송가 89장

아가서 2:13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 무론하고 유월절 때 애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방황하듯 살았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목소리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광야의 백성이 경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매 맺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이상향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와 폭염으로 고통하는 우리에게도 사랑이 많은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친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 질문: 어려운 시기에 누구의 도움을 구하나요?

\* 기도: 주님, 사랑의 손길을 붙들게 하소서. 아멘

2022년 7월 26일(화)

참자! 참자! 참자!

찬송 342장

야고보서 5:8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해결의 답은 매우 단순합니다. 갈등과 반목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롬8:28)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고 믿음으로 참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실 ‘교회’라고 해서 반목과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공동체 역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로 관계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길이 참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서로 화해하며 화평을 나누는 관계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 질문: 인간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갈등과 반목의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 기도: 주님! 흔들리지 않고 길이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2022년 7월 27일(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송 357장

시편 6:6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누구나 인생의 길에서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다윗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듯 합니다.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 고 전하며 “어느 때 까지이니까?”(3절)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은 그 때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환란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 질문: 인생길에서 가장 어려웠던 적은 언제입니까?

\* 기도: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2022년 7월 28일(목)

말하기는 천천히, 듣기는 빠르게

찬송 260장

야고보서 1:15-20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19절)

오늘 읽은 야고보서 말씀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삶의 지혜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하기보다 중요한 듣기를 실천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누군가의 말을 귀담아듣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축적되고 오래된 정보들은 단단해지고 굳어져서 다른 생각이나 의견들이 들어올 틈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보다 다른 이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지혜임을 알면서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어려운 일에 도전하라고 제안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 질문: 나에게 있어서 듣기보다 말하기가 앞서게 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 기도: 주님, 나의 말을 더디하며, 다른 이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소서. 아멘.

2022년 7월 29일(금)

성경 속에 길이 있다

찬송 93장

시편 119:105-11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105절)

다윗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했듯이 시편 119편에는 주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됨을 누차 강조합니다. 주님과 의 만남은 빛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명확해집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내가 걷는 걸음마다 어디로 가야할 지를 인도받게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10절에서 모세는 두렵고 무서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통해 만나주신 걸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길이 없고 마실 물과 양식이 없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셨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일 일로 인해 염려하지 마시고 그날의 일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 질문: 오늘도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 기도: 주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실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할 길을 보여주소서. 아멘.

2022년 7월 30일(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찬송 380장

누가복음 1:66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따라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처음에는 요한의 출생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며 서로 물었습니다. 요한은 자라서 어떻게 되었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요한과 함께 하신다”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던 예수는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을 뒤따라 갑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은 장차 어찌 될까요? 성경이 거듭 증언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는 구원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불신과 불안함보다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나와 가족은 장차 어떤 모습이 될까요?

\* 기도: 주님, 세례요한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을 가게 해주소서. 아멘.

2022년 7월 31일(주일)

가치충돌

찬송 315장

창세기 25:27-34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34절)

이삭과 리브가의 첫째 아들, 에서는 사냥에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던 이삭은 첫째를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다 보니 장막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아들은 삶의 방식과 가치가 매우 달랐습니다. 어느 날 에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들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썩 팥죽을 자기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그 때,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달라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개의치 않고 야곱에게 넘겨버리고 당장의 허기를 팥죽으로 채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에도 욕심을 내었던 야곱과는 달리 에서는 당장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했죠. 나중에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신이 받을 축복까지 빼앗겼죠.

\* 질문: 나는 에서와 같은 실수를 범치 않나요?

\* 기도: 주님, 당장의 이득보다 주님이 주실 복을 더욱 사모하게 하소서. 아멘